

## 구약 신학적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이름**(**쉐/이름**)

윤 형\*

### 1. 들어가는 말

이름이란 무엇일까?<sup>1)</sup> 이것은 한편으로 매우 쉬운 질문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이다. 물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과 관련하여 ‘이름’이란 낱말이 중요한 순간마다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평범해 보기에 대수롭지 않게 보고 그냥 넘어가기 쉽다. 하지만 해당 본문들을 반복해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면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구약 신학적인 관점에서<sup>2)</sup> 특히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하여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속성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세상과 사람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 장로회신학대학교 강사, 구약학

- 1) 이희승 편저, 『국어 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2004), 3016. ① 사람의 성(姓) 아래에 붙여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명칭, ② 유형, 무형의 사물을 말로 나타낸 일컬음, 또는 개념을 대표하고 그 사물과 딴 사물과를 구별하기 위한 칭호임. 명칭, ③ 개개의 단체 등을 가리키는 칭호, ④ 평판, ⑤ 명예, ⑥ 구실이나 명분, ⑦ 명의(문서상의 이름) 및 자격을 의미한다.
- 2) 본 논문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구약 신학적인 관점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자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그중에 베르너 램케(Werner Lemke)는 구약 신학을 사람 및 세상과 관련하여 구약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는 바를 일관성 있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묘사하려고 하는 주석적이면서 신학적인 학문 분과로 이해한다. 박동현, 『구약 성경과 구약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9), 219에서 재인용함.

우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와 사물은 나름대로의 이름을 갖고 있다. 그것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처럼 이름은 해당 객체에 대한 존재론적이며 실체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 정체성(identity)을 대변한다.<sup>3)</sup> 더군다나 그 이름이 한 가문을 대표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존재론적인 의미 그 이상을 지닌다. 소위 이름이 갖고 있는 대외적인 영향력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저마다 입신양명(立身揚明)을 꿈꾼다: ‘몸을 세워 이름을 드날림, 즉 출세하여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드날림.’ 해당 인물은 가문의 영광을 이룩한 사람이라고 불리며, 이런 사람은 가문의 영광스러운 족보에 이름을 올릴 자격이 주어진다(집회서 40:19). 이에 반해 악한 사람의 이름은 그 민족, 사회 및 해당 가문을 더럽힌다(참조, 시 41:6). 이런 점에서 이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Power)과 격(Person)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어떤 단체(학교, 회사, 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 즉, 소속된 단체의 이름에 따라 사람의 신분이 구별되는 셈이다. 이처럼 사람은 명성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하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부단히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창 11장) 하는 것일까? 이것은 높은 권세 및 영예에 대한 강한 열망을 반증한다.

또한 이름은 기억과도 관련된다. 인사유명 호사유피(人死有明 虎死留皮)라는 고사성어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사람들은 죽어서 자기가 잊히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한다. 이른바 현 세계로부터의 영원한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에 사람들은 영웅이나 유명 인사가 되고 싶은 꿈을 꾸다. 왜냐하면 유명해진 그의 이름은 공적 및 개인에 대한 객관적이며 도덕적인 평가에 관계없이 대대로 인구에 회자되기 때문이

---

3) Silvia Schroer and Ruben Zimmermann, *Art.: Namen in: Sozialgeschichtliches Wörterbuch zur Bibel*, Frank Crüsemann u.a., eds. (Gütersloh: Gütersloher 2009), 416-420.

다. 이것은 동서양 어디서나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하여 철학자 플라톤(Platon)은 자신의 작품 향연(Symposion)에서 이렇게 기술한다: “인간은 유명해져 불멸의 명성을 영원히 얻고자 하는 강한 충동을 갖고 있다.”<sup>4)</sup> 따라서 그 사람은 죽어서도 사람들의 입에서 살아남아 있게 된다. 이것은 ‘이름’이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반증이다(참조, 신 25:6; 룻 4:5). 이런 예로서 고대 동방의 길가메쉬 서사시(Gilgamesch-Epos)에 따르면 홍수 영웅 우트나피쉬티(Utnapischtim)은 홍수 재난을 이겨내고 신들의 반열에 들어섬으로써 죽음의 공포를 넘어가게 된다. 이를 본받아 우룩(Uruk)의 왕 길가메쉬(Gilgamesch)는 영생을 찾아 길을 떠나 우트나피쉬티를 찾아가 지혜를 구해서 나름대로 노력해보지만, 결국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달하고 건축물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는 것으로 만족한다.<sup>5)</sup>

이제 사람은 차안을 떠나 피안의 신들의 세계와 만남으로써 신들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그 부름의 행위를 통해 신들과 제의적인 상호 관계를 갖는다. 그 신들은 불멸성을 갖고 있으며, 각 제국과 민족 및 도시의 운명 및 정체성을 규정한다. 그들이 각기 고유한 이름(신명)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존재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과연 그 신들은 어디서 기원하였으며<sup>6)</sup>, 그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을까? 대부

4) Platon, *Symposion*, 208c. 위르겐 에바흐(J. Ebach)의 다음 논문에서 재인용함: *Wir sind ein Volk, Weil das, was ist, nicht alles ist! Theologische Reden 4* (Frankfurt a.M.: Verl. Gemeinschaftswerk der Evang. Publizistik e.v., 1998), 121.

5) 노세영, 박종수, 『고대 근동의 역사와 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194-197. 참조, H. Gunkel, *Genesi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7<sup>9)</sup>, 94. 고대 세계에서 강한 통치자는 자기 이름을 후세에 남길 성을 짓는 것이 보통이다(다윗 성, 람세스, 사르곤 성,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등). 왜냐하면 자손과 성 건설은 이름을 보존하기 때문이다(집회서 40:19).

6) 참조, W. von Soden, *Bibel und Alter Orient, Altorientalische Beiträge zum Alten Testament* (Berlin: de Gruyter, 1985), 206: “신들이 인간들이었을 때 그들은 질고를 겪어지었으며 광주리를 지고 다녔다(즉, 부과된 강제노동).” 그래서 신들이 안식을 취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간이 창조되어야만 했다. 이것은 신들이 사람의 수고에 종속되어 있음을 반증한다.

분 고대 근동의 많은 신들의 이름은 자연과 결부되어 있거나, 그 신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에 따라 붙여졌다.<sup>7)</sup> 그런데 사람들은 왜 신들과 관계를 가지려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사람의 이름은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웨(יהוה)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창 4:26; 율 3:5)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이름에 대한 신학적 고찰

이름은 한 객체의 존재성을 표현한다. 동시에 이름은 그와 관련된 정보(Information)를 담고 있다. 이름 자체가 형식(Form)이라면, 그 안에 본질적인 의미가 들어 있다. 타자에게 이름을 준 주체는 그 이름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담는다.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관계에서 부모는 자식에게 장래에 잘되기를 바라면서 그 기원을 이름에 담는다. 이것은 이름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지닌 인격체와 그 인격체의 본질 및 활동과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다.<sup>8)</sup>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도 이름에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상 만물의 창조 이후 지상의 첫 번째 사람은 그 근원된 אָדָם(아담/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이름이 אָדָם(아담/사람)이다(창 2:7). 이는 사람의 기원이 무엇인지 잘 말해준다. 여자를 의미하는 히브

7) Peter Gerlitz, *Art.: Name/Namengebung*, TRE(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Bd. 23 (Berlin: Walter de Gruyter, 1994), 744; 주은평, “하나님의 이름 יהוה에 관한 해석,” 『구약논단』 45 (2012), 74-77. 다양한 신의 이름을 통한 다기능적 구실을 하는 신적 개념은 고대 근동 신화 속에서 발견되는 신 이름의 특성이다.

8) 『개역한글판 성경전서(독일성서공회해설)』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7), 부록 50.

리어 **אִשָּׁרָא**(잇샤/여자)는 **אִשְׁרָא**(잇쉬/남자)라는 남자에게서 파생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창 2:23). 또한 아담은 각 생물에게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생물에 대한 다스림(*Herrschaft*)의 권한을 취득한다(창 2:19). 모든 산 자의 어미를 의미하는 하와는 그 기원이 생명을 의미한다(창 3:20). 카인은 하와가 야웨로 말미암아 얻었다(**קַיִן**/카나/얻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창 4:1), 그 아우 아벨은 무대에서 대사 한 번 안 나오고 연기처럼 헛되이 사라진다는 **לֵבֶלֶת**(헤벨/헛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도 나름대로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다.<sup>9)</sup> 그 마지막에 나오는 노아란 이름에 있어서는 아버지 라멕이 하나님이 저주한 땅에서(창 3:17) 수고로이 일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덜어주었으면 의미에서 아들의 이름을 **נֹחַ**(누아흐/노아), 즉 ‘안위’라고 짓는다(창 5:29).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셈, 함, 야벳)도 그 의미와 역할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창 9:25-27). 그 중 데라의 조상 ‘셈’은 그 이름 자체가 흥미롭게도 ‘이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셈 족보 직전에 나오는 바벨탑 기사(창 11:4)와 셈 족보 이후의 아브라함 기사(창 12:2)는 ‘이름’이라는 모티브를 통해 서로 연결된다. 전자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려는 능동성을 말하고, 후자는 커지는 아브람의 이름의 수동성을 말해준다.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성경의 인물들은 그 이름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야곱은 ‘하나님과 사람이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받는다(창 32:24-32; 35:10). 그 이후 성경은 개인적이며 미시적인 의미에서 ‘야곱’이란 이름과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거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혼용하여 문맥(*Kontext*)에 따라 사용한다. 마침내 그 이름은 모세의 질문과 응답을 통해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인 신성사문자(출

9) 참고, Richard S. Hess, *Studies in the Personal Names of Genesis 1-11*, AOAT(Bd. 234)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3).

3:13-14)와 결합됨으로써 이제 세상 전체와 관련된 구원사적이며 역사철학적(historiosophy)인 의미를 갖게 된다. 그 하나님의 이름도 의미를 담고 있다: **אֱלֹהֵינוּ אֱלֹהֵי יְהוָה**(에호에 아쉐르 에호에/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기서 이른바 존재론적인 자동사 **היה**(하야/있다)가 사용되고 있다. 이 동사는 아웨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기원과 의미를 밝혀줄 매우 중요한 단어이다.<sup>10)</sup>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본 동사에 대한 어근 분석을 통해 이 이름의 적절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벤너(Jeff A. Benner)는 이 동사가 원래 ‘호흡하다(breath)’라는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sup>11)</sup> 어쨌든 이방 민족이 자기 신에게 이름을 붙여 칭한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밝힌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다. 엘로힘(Elohim)이라는 보편적 신명에 야웨(YHWH)라는 구체적인 이름이 부가됨으로써 야웨 엘로힘(**אֱלֹהֵי יְהוָה**)이란 이름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와 관련된 의미를 지니게 된다.<sup>12)</sup> 이른바 그 이름 안에서 보편사적이며 거시적인 창조 사건(창 1:1-2:4a)과 특수적이며 미시적인 이스라엘 역사가 결합된

10) 토를라이프 보만,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의 비교』, 허혁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8), 45-61. 일반적으로 **היה**(하야/있다) 동사는 **Sein**(**be** 동사)과는 달리, 완전한 동사적 효력을 갖고 있는 실제적 동사이다. 또한 하야 동사는 존재, 생성, 작용의 통일성을 지니고 있으며, 잠재-행동적 동사군(=정적 동사들)에 잘 맞고 또 활동하는 인격의 존재에서 가장 잘 이해된다. Paul Joüon, S. J.-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2000), 357-358. 참조, 장영일, “야웨 이름의 기원과 의미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경건과 학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0), 17-44; 존 더햄, 『출애굽기』, WBC 성경주석, 손석태,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2000), 103.

11) J. A. Benner, *His Name Is One(Zechariah 14:9) An Ancient Hebrew Perspective of the Names of God* (Reading, Pa: Ancient Hebrew Research Center, 2002), 59-60.

12) 뿐만 아니라 오경 비평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비평의 기준이 바로 이 두 가지 신명이었다. 엘로힘/야웨. 이 신명을 기준으로 엘로히스트(Elohist) 자료와 야웨스트(Jahwist) 자료가 나뉘어진다. 더 나아가 학자들은 이 신명을 기준으로 창세기 1장 1:1-2:4a를 제사장계 자료(P)로, 창세기 2:4b-3:24을 야웨스트 자료(J)로 구체적으로 세분한다.

다: 창조와 역사. 이 말은 신학적으로 이스라엘의 야웨가 하나님(엘로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sup>13)</sup> 그렇다면 이 이름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기에 세상과 이스라엘, 그리고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가?

### 3. 하나님의 이름의 성격

앞에서 언급한 구약의 인물들에게 신학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준 하나님의 이름의 구체적인 성격을 파악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실존성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의 본질에 대하여 언급한 성경적인 증거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의 가장 큰 특징은 현존(Presence)에 있다. 즉, 지금 실재한다는 것이다. 세계정신이나 절대정신이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상에 실존한다는 것이다.<sup>14)</sup> 다만 그 존재가 사람의 눈에 은폐되어 있을 따름이다. 어근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표현이 바로 현존을 대변한다.<sup>15)</sup> 그것은 특정 공간에 실체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하여 카수토(U. Cassuto)는 출애굽기 3장 14절의 **꺀꺀**(에호예/내가 있다) 동사의 의미를 12a절의 의미 **꺀꺀**(에호예/내가 함께 있으리라)를 가져와 ‘현존’의 의

- 
- 13) 히브리어 문장 구조로 볼 때 ‘야웨 엘로힘’은 그 자체가 명사 문장(주어나 술어가 명사나 그에 상응하는 말을 취하는 모든 문장)이다. 이렇게 ‘야웨’와 ‘엘로힘’이란 두 이름의 결합은 족장들(아브라함, 이삭 및 야곱,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된다는 출애굽기 3장 15절에 근거한다(참고, 창 32:28; 35:10).
- 14) 한스 요아킴 크라우스, 『시편의 신학』, 신윤수 역 (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2004), 72.
- 15) 발터 침멀리, 『구약 신학』, 김정준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7), 27. 특히 침멀리는 야웨라는 이름과 ‘자유’를 연결시킨다.

미를 강조한다.<sup>16)</sup> 이에 반해 ‘우상’이란 낱말은 ‘아무것도 없다(שׁוֹמֵם/엘릴/ Nothing)’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레 19:4; 시 96:5; 사 2:8; 10:10; 합 2:18). 즉, 실재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사람의 정신이 만들어낸 가상적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sup>17)</sup> 소위 절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힘도 영향력도 없다. 그 힘은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을 우상을 통해 다시 돌려받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신들을 고안해 낸 사람들 자신의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패트릭 밀러(Patrick D. Miller)는 그런 우상들의 존재는 광대하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실재를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sup>18)</sup> 아브라함 헤셀(A. J. Heschel)은 이런 우상을 ‘비가시적인 것을 대신해서 보여주는 가시적인 물건, 또는 현존하지 않는 것을 대신해서 보여주는 실제적인 상징물’로 표현한다.<sup>19)</sup> 따라서 그 신들은 존재하지 않기에 ‘역사’와 연결될 수도 없다. 단지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지역<sup>20)</sup>의 흥망성쇠와 잠시 운명을 같이 한다. 즉, 그들은 인간과 같이 자기중심적이며 비역사적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상을 가질 수 없다. 특별히 이런 우상의 무기력함을 이사야서는 강하게 역설한다(사 44:9-20). 이에 반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구체적인 한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일관된 영향력을 수행한 실존이라는 점에 독특한 특징이 있다. 동시에 부동의 존재론적인 철학적 신개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이름을 통해 자신을 계시한 성경의

16) U. Cassuto, *Exodus,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xodus* (Jerusalem: Magnes Press, 1987), 37-38.

17) 루드비히 포이어바흐, 『기독교의 본질』, 강대석 역 (서울: 도서출판 한길사, 2008), 76, 196, 436.

18) 패트릭 밀러, 『신명기(현대성서주석)』, 김희권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 113.

19) 빅터 헤밀톤, 『오경개론』, 강성열, 박철현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7), 253.

20) 고대 근동 지역(이집트, 수메르, 바벨론, 헷족, 서부셈족)의 신관은 모두 다신론체계를 갖고 있다. 특히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참조, Helmer Ringgren, *Die Religionen des Alten Orient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9).

하나님과 반대된다. 이렇게 오랜 전승 과정을 통해 구약은 역사 가운데 나타난 행동적인 유일신관을 성경 전체에 걸쳐 역설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구약의 하나님의 독특성은 역사(History)와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왕국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신앙을 통해 야웨가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믿음(시온 신학)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유폐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의 자유성을 침해하게 된다. 이것은 나중에 예언자들의 강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다가 에스겔에 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도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통해 다시 자유를 회복하게 된다(겔 48:35).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현존성과 역동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함(קדוּשָׁה/코데쉬)이란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이름 및 신들의 이름과 구별된 존재로서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십계명 중 3계명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sup>21)</sup> 부르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한다(출 20:7; 레 20:3).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칭하는 것을 금하는 관행을 가정에서나 한 국가에서 볼 수 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켰다. 또한 성경의 필사자는 하나님의 이름(YHWH/신성사문자: Tetragrammaton)이 나올 때마다 몸을 깨끗이 했다는 우화는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의 정확한 발음을 알 수 없다.<sup>22)</sup> 랍비 자료에 따르면 하나님을 돌려 칭할 때 **יהוה**(하셈/그 이름)이라고 한다. 이것은 신성사문자를 대신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sup>23)</sup> 이 밖에

21) 여기서 ‘망령되게’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샤베아’(שָׁבַע)는 ‘아무것도 없는 것, 실제적인 것이 아닌 것’, 심지어는 ‘거짓말’을 의미한다. 참조, 존 더렘, 『출애굽기』, WBC 성경주석, 477.

22) 참조, 이영근 편저, 『히브리어문법해설』 (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2009), 108-109.

23) Bill Rebiger, *Art.: Namen Gottes*, RGG<sup>4</sup>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중세 스페인의 유대교 신비철학자(Kabbalist)인 요셉 아브라함 기카틸라(Joseph b. Abraham Gikatillah: 1248-1305)는 오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명(엘, 엘로힘, 샤다이, 츠바오트 등)이 이 신성사문자(YHWH)와 관련되며 동시에 그에 의존한다고 말한다.<sup>24)</sup> 한편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었다(신 18:20). 왜냐하면 신들의 이름(시돈의 여신 아스다룻,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의 신 밀곰 등)을 부르는 것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배 행위이기 때문이다(왕상 11:33). 동시에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레 19:12). 거룩함의 의미를 구체적이면서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언서를 통해서이다. 즉, 예언자들은 반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고 말한다(겔 36:20). 특히 에스겔서는 이상적인 성전 환상 장면(겔 40-48장)에서 성전과 왕궁의 엄격한 분리를 통해 성전의 거룩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왕국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한 의미를 올바로 알고 있지 못했었음을 반증한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왕정 내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정치적으로 세속화시켰다. 여기서 시온 신학은 출애굽 신학과 충돌함으로써 심각한 긴장 관계에 빠지게 된다.<sup>25)</sup>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던 죄는 왕국의 분열로 이어지고, 급기야 두 왕국 모두 차례차례 이방인이 통치하는 세계 제국의 속국이 된다.

셋째, **יהוה**(헤세드/인애)와 **יהוה אלהים**(에무나/진실)가 하나님의 이름의 특징이다. 출애굽기 34장 5-6절은 이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며 다섯 가지로 나누어 그 성격을 정확하게 언급

Bd. 6 (Tübingen: Mohr Siebeck, 2003), 41.

24) George H. van Kooten, ed., *The Revelation of the Name YHWH to Moses, Perspectives from Judaism, the Pagan Graeco-Roman World and Early Christianity* (Leiden: Brill, 2006), 14.

25) 존 브라이트, 『이스라엘 역사』, 박문재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460. 시나 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소박한 이동 성막에 머물지만, 시온에서는 화려한 고정된 장소에 머문다.

하고 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음.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인애와 진실로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이다.<sup>26)</sup> 즉,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접근성이다. 이것은 하나님이란 존재가 초월자로서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시 61:8). 마치 어린 자녀가 아빠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아이가 아빠를 부르면 가까이 다가간다. 그래서 그 아이의 말과 어려움을 들어 준다. 그러므로 아이에게는 ‘아빠’라는 이름 자체가 신뢰감(애무나)과 친근함(헤세드)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아이는 그 이름을 부르지만 하면 아빠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양자가 가장 친근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양자의 관계가 ‘나’(I)와 ‘그것’(It)이 아니라, ‘나’(I)와 ‘너’(You)라는 상응관계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상호관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수단이다. 이런 관계 하에서 양자의 질문과 응답이 이루어진다. 일상적인 기도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야말로 기도의 첫 시작이 아닌가! 그러므로 시편에 자주 나오는 **꺄꺄 꺄꺄**(르마안 쉬르 카/당신의 이름을 위하여)란 표현은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다는 것과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임재에 대한 진실한 보증이다(시 23:3; 25:11; 31:3; 106:8; 109:21; 148:5, 13).<sup>27)</sup>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의 신성사문자에 대한 주석은 바로 이어지는 3장 15절에 나오는 조상들의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한다. 즉, **YHWH**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이다.<sup>28)</sup>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관계적이며 신뢰감의 구체적인 증거이다.

넷째, 하나님의 이름은 권위적이며 실제적인 힘(Power)을 갖고 있다(출 15:2-3). 구약에서 하나님은 종종 전사로 등장한다. 그 핵심에는

26) F. V. Reiterer, *Art.: 꺄꺄; ThWAT VIII* (Stuttgart: Kohlhammer, 1995), 154.

27) 한스 요아킴 크라우스, 『시편의 신학』, 39.

28) R. Feldmeier and H. Spieckermann, *Der Gott der Lebendigen. Topoi Biblischer Theologie* (Tübingen: Mohr Siebeck, 2011), 30.

거룩한 전쟁과 관련된 법례가 자리하고 있다(민 10:33-36).<sup>29)</sup> 특히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을 연결시키고 있다(삼상 17:45). 다윗 왕조의 시온 신학은 מִיָּמֵינוּ אֱלֹהֵינוּ[아도나이 츠바오트/만군(Hosts or Armies)의 야웨]라는 하나님<sup>30)</sup>의 이름이 예루살렘의 성소에 거하신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의 이름이야말로 천군만마와도 같은 존재이다. 이 이름이야말로 도움의 근원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와 이름에 있도다(시 124:8)’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 특별히 시편에서는 다양한 은유 호칭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힘을 보증한다.<sup>31)</sup> 여기서 이름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실제적인 영향력을 지닌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시 118:10-12). 그 이름과 존재가 일체성을 갖는다. 즉, 그 이름이 곧 그 자신이다: “*Nomen Dei est Deus ipse*”(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이다).<sup>32)</sup> 강승일은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의 실체화라고 칭한다.<sup>33)</sup> 따라서 그 이름은 실질적인 구원의 표지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은 파멸적인 상황에서도 그 이름에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인 희망을 담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름은 ‘영향력을 지닌 존재(Person)’라고 할 수 있다(출 15:3). 이상의 네 가지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성격 및 본질이 무엇인지 잘 말해준다.

29) 강사문, 『구약의 하나님』(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1999), 226. 고대 전쟁 개념에는 신의 현존 개념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때 야웨가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은 야웨의 현존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례가 전쟁 대열 앞에 참여했다는 것이다(삼하 11:11). 따라서 야웨의 현존은 그의 이름의 어근(하아)이 증명한다(출 3:14).

30) 한스 요아킴 크라우스, 『시편의 신학』, 34-37.

31) 박영희, “하나님 호칭(epithet)로서의 מְצַדִּיק(메쭈다/요새)와 מְשַׁבֵּחַ(미쓰잡/산성)의 호격사용,” 『구약논단』 42 (2011), 167-184.

32) 한스 요아킴 크라우스, 『시편의 신학』, 40.

33) 강승일, “야웨 하나님의 아내,” 『구약논단』 40 (2011), 130. 이런 실체화를 통해 ‘이름’이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지위를 차지해서 지상에서 사실상 하나님을 대신한다.

#### 4. 하나님의 이름의 전승

위의 네 가지 특징을 지닌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전승적인 자취를 남겼을까? 야웨 하나님은 족장들(출 2:24), 사사 및 예언자들에게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두고 과거에 했던 약속을 기억 하여 역사 속에 기적을 베풀었지만, 이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세속화시키고 망각하기가 다반사였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만 주어졌지, 그의 형상과 모습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반해 우상들은 자연 및 동물 형상을 따라 모두 구체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문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발목을 잡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할 뻔했다(출 32장). 따라서 율법의 핵심에는 항상 이 우상 금지 문제가 자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백성에게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을 통해 주었기 때문이었다(출 20:22-24). 이처럼 형상은 신의 실존 여부의 시금석인데, 야웨 하나님은 이것을 거부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신의 실존을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형상 만들기 유희에 빠진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승시키기 위한 궤적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다(시 102:12; 135:13; 호 12:5).<sup>34)</sup> 모세가 부름을 받고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 산을 거쳐 각종 간난신고를 무릅쓰고 모압 광야까지 목이 곤은 백성을 끝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추진력은 어디에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들려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에 있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출 3:14). 모세는 이 이름을 통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었던(출 3:4) 하나님의 실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로 이 이름은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존재의

34) 박호용, 『출애굽기 강의』 (서울: 한들출판사, 2006), 86.

구체성을 증명한다.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온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및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른 인물들이었다(시 99:6).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했던 시절의 역사이다. 전쟁의 위기에 닥쳐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왕의 권위적인 ‘이름’을 더 크게 의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삼상 8-12장).

이후 북이스라엘과 유다 왕정의 역사는 성전의 지성소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 역사라기보다는 망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시 50:22; 78:11). 오히려 백성들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불렀다(신 18:20; 렘 44:17). 그 혼란 가운데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였다. 그것을 신실히 이행하지 못한 백성을 보시고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있는 성소를 이방인이 파괴하도록 놔둔다(시 74:7; 79:1).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올바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망각하고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것은 남유다 왕국의 기반인 시온 신학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은 예루살렘을 떠나(겔 8-11장) 먼 바벨론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임재하신다(겔 48:35).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 제2성전 시대를 통과한다. 이후 강력한 세계 국가 체제 하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이 소멸되고 율법에 기반을 둔 하나의 종교 공동체가 생기면서 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향력의 범위는 상당히 축소된다.

## 5. 이스라엘의 과제

왜 하나님은 역사 시대 중간(중기 청동기 시대/2100-1600 B.C.)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스라엘(야곱)을 택했을까? 왜 하나님

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담고 있는 창세기 원역사(창 1-11장)를 성경의 맨 앞에 두었을까? 왜 그 부분에 창세기에 나오는 10개의 전체 족보(**מִלְחָמָה/톨레도트**)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다섯 개<sup>35)</sup>를 집중적으로 배치했을까? 이것은 무엇보다 원 역사 편찬자가 그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이 중에 특히 창세기 4장 26절의 에노스에 대한 기록에 뒤이어 나오는 아담의 족보(창 5:1)에서 그런 의도를 볼 수 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다시 창세기 5장 6절에 셋의 후손으로 에노스가 나오면서 4장과 연결된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면한 카인의 후손(창 4:17-23)과는 다른 족보임을 보여주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른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할 수 있다.<sup>36)</sup> 이른바 족보는 하나님과 사람의 이름 전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특별히 노아의 아들 셈(**שֵׁם**)은 이름(**שֵׁם**)이라는 의미를 지님과 아울러 여호와 하나님(**אֱלֹהֵי יְהוָה**)라는 이름(**שֵׁם**)과 연관된다(창 9:26). 이에 대해 야벳은 엘로힘이라는 신명과 연관된다(창 9:27). 이제 그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역사의 기원에서 있게 되며, 그 이전의 홍수 및 바벨탑 건축 등 신화적인 사건은 창조 이야기와 함께 아브라함 이후 사건의 배경 역할을 한다.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역사와 세상의 창조 사건이 동일한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야웨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말한다. 이렇게 창세기 원역사에 나오는 다섯 개의 족보는 바로 데라의 아들 아브람을 목표로 하고 있다(창 11:27). 이에

35) 하늘과 땅의 족보(창 2:4-4:26), 아담의 족보(창 5:1-6:8), 노아의 족보(창 6:9-9:29),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창 10:1-11:9), 셈의 족보(창 11:10-26).

36) T. Hieke, *Die Genealogien der Genesis* (Freiburg: Herder, 2003), 88f.

대해 역대기의 족보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인류 역사 안에 배치시켜 보편사와 관련된다.<sup>37)</sup>

구약 신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창조 사건과 한 민족의 특수한 역사가 동일한 주체 안에서 관계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호와가 이 민족을 택한 이유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신 7:7). 이것은 매우 역설적이다. 우선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면 백성의 숫자가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소수에 불과한 이 백성을 모든 민족 가운데 선택했다(신 7:6).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위치한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제사장 나라이다(출 19:6). 말하자면 그는 중보자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한다. 실제로 그 백성은 모세를 통해 만군의 야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알았고, 그 이름의 권능을 역사 속에서 체험했다. 그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이 백성의 역사가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변한다. 따라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역사 속에 보존할 과제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6. 하나님의 이름의 정경적인(canonical) 의미

창조주요 만군의 하나님인 야웨의 이름은 이스라엘 종교 공동체에서만 머무를 것인가?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는 단지 이스라엘만의 메시아일 뿐이다. 그 메시아는 유대 민족을 꺾박하는 민족들에게만 영향력을 행사할 뿐이다. 이는 부분에 불과한 상대적인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수호자일 뿐이다. 이것은 고대

---

37) YIGAL LEVIN, "From Lists to History: Chronological Aspects of the Chronicler's Genealogie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3 (2004), 608.

제국에서 섬기던 신들과 별반 다름없다. 유대인의 민족적인 세계관에 갇힌 하나님이 어떻게 만물의 창조자일 수 있는가? 이렇게 역동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극히 왜소화된 때에 극적인 반전 없이 인간의 역사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유대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반전의 역사가 시작된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좁은 세계관 속에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두었다.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유폐시켰듯이 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공동체에 국한 시킴으로써 그 자유성을 침해한다. 이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민족만의 구원을 바라면서 나머지 대부분의 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기회를 유기했다(참조, 출 19:6). 볼트만(R. Bultmann)은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과 ‘민족 공동체’ 사이의 모순이라고 표현한다.<sup>38)</sup> 이에 베스터만(C. Westermann)은 ‘역사’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여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의 동일성에 대하여 우리가 답변해야 한다고 말한다.<sup>39)</sup> 이제 우리는 해석학적으로 신구약의 상관관계에 입각하여, 즉 정경적인 입장에서 이런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비스(C. J. Davis)는 예수에 대한 질문에서 구약적인 증거와 함께 그 연속성을 주장한다(사 60:1-2; 습 3:9; 말 3:1).<sup>40)</sup> 구약과 신학적으로 연속선상에 놓인 신약에 따르면 이런 국면에 전환점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마침내 그는 그동안 감춰있던 하나님의 이름

38) 클라우스 베스터만 편, 『구약해석학』, 박문재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6), 72.

39) *Ibid.*, 45-50. 역사를 인간의 도전과 응전의 산물로만 봐야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개입시켜 그 역사의 방향성을 파악해야할 지에 대한 질문이다.

40) Carl Judson Davis, *The Name and Way of the Lord, Old Testament Themes, New Testament Christology*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158-160. 이에 그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째,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지상적인 자기 계시가 구약의 그것과 조화를 이루는가? 둘째, 기원의 객체로서의 예수가 구약에서의 이런 기원의 객체인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각자가 갖고 있는 구약 신학적인 관점에 달려 있다.

을 드러냈다(요 17:6).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다(마 16:16). 그런데 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야웨 엘로힘(יהוה אלהים)을 가리킨다. 예수도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일을 했다(요 17:5). 즉,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마침내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야웨의 현존(Presence)이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언 중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는 점이 아주 특이하다(막 10:45). 이것은 고대인들과 현대인들의 신 개념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벨하우젠(J. Wellhausen)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셈족에게 있어 ‘신(Gott)’이란 개념은 주권이나 지배(Herrschaft)라는 개념과 관계가 깊다.<sup>41)</sup> 이것은 신이 사람에게 비하여 우등한 존재로서 사람을 지배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고대 세계에서 인간은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고 그 수발을 드는 위치에 있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섬긴다고 말한다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속성을 보여 준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상하지배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인간 창조의 기원과 그 목적에도 부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창 1:26f.).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에 대해 본질적인 격(Person)을 부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준거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사람은 자기 이름에 담긴 신학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

41) 다음 책에서 재인용함. H. Junker, *Die Biblische Urgeschichte in ihrer Bedeutung als Grundlage der alttestamentlichen Offenbarung* (Bonn: Hanstein, 1932), 23: 이에 대해 벨하우젠(J. Wellhausen)은 다음과 같이 인상적으로 단언한다: “셈족에게 ‘하나님’이란 개념의 진정한 내용은 주권(Herrschaft)이다.” 현대인의 신인식도 이런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 7. 나가는 말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사람의 이름과 관련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그 이름의 의미, 특징, 전승 궤적 등을 살펴보았다. 우선 분명한 것은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존재의 격(Person)을 나타낸다는 점과 동시에 이름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특히 신의 이름은 ‘생명’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름은 그 안에 의미를 담고 있는데, 특히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 약속 등과 관련된 신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중에 야곱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웨’라는 하나님(엘로힘)의 이름과 결합되어 신학적이며 역사철학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이제 야웨 엘로힘이란 이름은 현존, 거룩함, 인애와 진실, 그리고 힘이라는 특징적인 요소를 함축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기보다는 망각하는 일이 더 많았던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다. 그는 실존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기보다는 허상뿐인 우상들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구약의 깊은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쉬지 않고 흐르고 있었다. 마침내 유대 공동체 안에 은폐되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이 신약의 선언이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보다 분명히 드러남으로써 그 안에서 사람은 잃어버린 자기의 올바른 격(Person)을 회복하게 된다.

### <주요어>

이름, 족보, 기억, 현존, 우상

### <Keywords>

Name, Pedigree, Memory, Presence, Idol

## 참고문헌

- 강사문, 『구약의 하나님』,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1999.
- 강승일, “야웨 하나님의 아내,” 『구약논단』 40 (2011), 123-144.
- 노세영, 박종수, 『고대 근동의 역사와 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 루드비히 포이어바흐, 『기독교의 본질』, 강대석 역, 서울: 도서출판 한길사, 2008.
- 박동현, 『구약 성경과 구약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9.
- 박영희, “하나님 호칭(epithet)로서의  $\text{הַיְהוָה}$ (메쭈다/요새)와  $\text{הַשֵּׁם}$ (미쓰갑/산성)의 호격 사용,” 『구약논단』 42 (2011), 167-187.
- 박호용, 『출애굽기 강의』, 서울: 한들출판사, 2006.
- 발터 침멀리, 『구약 신학』, 김정준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7.
- 빅터 P. 해밀튼, 『오경개론』, 강성열, 박철현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7.
- 이영근 편저, 『히브리어문법해설』, 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2009.
- 이희승 편저, 『국어 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2004.
- 장영일, 『이스라엘의 경건과 학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0.
- 존 더햄, 『출애굽기』, WBC 성경주석, 손석태, 채친석 역, 서울: 솔로몬, 2000.
- 존 브라이트, 『이스라엘 역사』, 박문재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 주은평, “하나님의 이름  $\text{הויה}$ 에 관한 해석,” 『구약논단』 45 (2012), 61-84.
- 클라우스 베스터만 편, 『구약해석학』, 박문재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6.
- 토를라이프 보만,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의 비교』, 허 혁 역, 왜관: 분도 출판사, 1998.
- 패트릭 D. 밀러, 『신명기(현대성서주석)』, 김희권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
- 한스 요아킴 크라우스, 『시편의 신학』, 신윤수 역, 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2004.
- Benner, J. A., *His Name Is One(Zechariah 14:9) An Ancient Hebrew Perspective of the Names of God*, Reading, Pa: Ancient Hebrew Research Center,

2002.

- Cassuto, U., *Exodus,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xodus*, Jerusalem: Magnes Press, 1987.
- Davis, Carl Judson, *The Name and Way of the Lord*, Old Testament Themes, New Testament Christology,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 Ebach, J., *Wir sind ein Volk*, Weil das, was ist, nicht alles ist! Theologische Reden 4, Frankfurt a. M.: Verl. Gemeinschaftswerk der Evang. Publizistik e.v., 1998.
- Feldmeier, R. and Spieckermann, H., *Der Gott der Lebendigen. Topoi Biblischer Theologie*, Tübingen: Mohr Siebeck, 2011.
- Frank Crüsemann u.a.(Hg.), *Sozialgeschichtliches Wörterbuch zur Bibel*, Art.: Namen, Gütersloh: Gütersloher, 2009.
- Gunkel, H., *Genesi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7.<sup>9</sup>
- Hess, Richard S., *Studies in the Personal Names of Genesis 1-11*, AOAT(Bd. 234),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3.
- Hieke, T., *Die Genealogien der Genesis*, Freiburg: Herder, 2003.
- Joüon, Paul, S. J.-Muraoka, T.,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2000.
- Junker, H., *Die Biblische Urgeschichte in ihrer Bedeutung als Grundlage der alttestamentlichen Offenbarung*, Bonn: Hanstein, 1932.
- LEVIN, YIGAL, "From Lists to History: Chronological Aspects of the Chronicler's Genealogie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3 (2004), 601-636.
- Ringgren, Helmer, *Die Religionen des Alten Orient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9.
- Soden, W. von, *Bibel und Alter Orient*, Altorientalische Beiträge zum Alten Testament, Berlin: de Gruyter, 1985.
- Van Kooten and George H., eds., *The Revelation of the Name YHWH to Moses*, Perspectives from Judaism, the Pagan Graeco-Roman World and Early Christianity, Leiden: Brill, 2006.

<초록>

## 구약 신학적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꺄**(쉐/이름)

윤 형

(장로회신학대학교 강사)

본 논문은 구약 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에 사람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름의 의미를 탐구하면서, 그 이름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이름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재발견하고자 한다. 우선 이름은 한 존재의 정체성을 대변하며 그 특징과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성경에는 사람과 신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양자의 기원이 각기 다르다. 즉, 전자의 이름은 제 3자에 의해 주어지는데 비해, 하나님은 다른 세계의 신들과 달리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음성으로 직접 말해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 3:14). 이 동사의 어근은 ‘하야’인데, 이것은 ‘있음 또는 호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존재의 실존을 강조한다. 이와는 반대로 우상은 ‘엘릴’으로 ‘없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역사적이라는 데 그 특징이 있는데, 이에 비해 이방신들은 비역사적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제국의 붕괴와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밖에 하나님의 이름은 현존, 거룩, 인애와 진실, 그리고 힘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른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말씀을 통해 계속 이어지며, 특히 예언자의 입을 통해 보존된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대신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 자체이다. 이스라엘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중단 없이 보존한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과연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공동체 안에

숨어버렸는가? 전환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마련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와 함께 드러났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자신의 격을 재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람들에게 자신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Abstract>

## **The Name of God in the Sight of the Old Testament Theology**

Lecturer. Hyung Youn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meaning of 'name' under the perspective of the old testament theology, which is variously found in the name of men and God in Bible, and to find the basic identity of the name and to refind the concept of the name. At first the name represents the identity of one being, and has its own information in relation to the character of its owner. Above all various names of men, gods and YHWH appear in Bible. However their origin is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he former case the name has been given to them by the another. But the case of the latter is different from the gods of the other world. He reveals directly his name to Moses with the voice: I am who I am(Ex 3:14). The root of the verb is in Hebrew hyh(haya), which means 'anything or breath.' This verb emphasizes the existence of one Being. To the contrary idol is elil, which means 'nothing.' In addition the

israelite God YHWH is historical as known in history of Israel. In compare to that the heretical gods are unhistorical. Because they disappear with the collapse of their empire. Besides YHWH has his own peculiar characters, which are Presence, Holiness, Mercy and Compassion, Power. But Israel forgets the holy Name YHWH in his history and calls the name of heretical gods. Nevertheless the name YHWH lives through the words of God, above all by the mouth of the prophets. The Name of God is on behalf of God: “Nomen Dei est Deus ipse.” Israel preserves continuously God’s Name through the history. Here one question is raised: hid the Name of God itself behind the narrow community Israel? But the turning point is made with the appearance of Jesus Christ. Because the Name of God YHWH is revealed with him. In result one knows under the perspective of old testament theology, that the Name of God, which was revealed to Moses in Sinai Mountain, is as same as that of God of Jesus Christ. Finally man re-finds his own Person through the calling of his name. Therefore this article offers the opportunity to people, his own Identity newly to find.